

PHOTO **빛**

Focus 구본창

New Portfolio 장인아 이현무

Works 윤길중

Special 작가탐구 신은경

커머셜 포토그래퍼 김재경

201404. vol.5



ISSN 2288-6109



월간 포토닷 2013년 11월4일 등록(공산, 라.09981) 통권 5호 2014년 4월1일 발행 | 정가 10,000원

존재하지 않음으로 존재하는 이미지

오리고 겹치는 사진 조각, Soo Kim

글 | 이철승(미국 로스앤젤레스 통신원)

처음 접한 그녀의 작품은 로스앤젤레스의 장 폴 게티 뮤지엄(J. Paul Getty Museum)에서 컬렉션으로 소장하고 있는 'Midnight Reykjavik #5'와 'Midnight Reykjavik #8' 두 작품이었다. 작품명에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어 작품과 처음 친해지는 과정은 다소 순조로웠다.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Reykjavik)의 차가운 기운을 상상하고 백야가 주는 낯선 느낌을 즐기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다만 'Midnight Reykjavik' 시리즈를 제외하면 그녀의 최근 작품들의 작명 방식은 수동적인 감상방식을 가진 모든 이들의 사고를 미궁 속에 넣고 말 것이란 걸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럼에도 'Midnight Reykjavik' 시리즈의 제목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 사진이고 분명 풍경은 맞는데, 가까이 갈수록 겹겹이 쌓인 층이 일어나고 평면에서 불쑥불쑥 솟아난 풍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조각처럼 분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수 김(Soo Kim)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녀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재단이 매년 사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존 구트만 포토그래피 펠로우십'(John Gutmann Photography Fellowship)을 받으면서이다. 상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그녀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더욱 그녀를 주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이번 수상을 두고 '한국미술의 약진'이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수 김은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나 12살이 되던 해인 1980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 Riverside)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다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Critical Writing(비평적 글쓰기)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오티스 예술대학(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사진학과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34년째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작업하는 수 김에게 특별히 한국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서 한국의 미나 한국미술의 특징을 애써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작품을 한국미술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니와 국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 사진을 오린 다음 다시 겹치는 그녀의 독창적인 작업은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두고 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만 진행되었다.

Midnight Reykjavik #6, 2007. From Midnight Reykjavik series
Two hand-cut chromogenic prints, 48x48inches, Unique





대낮에 촬영한 듯한 풍경인데 작품명에는 자정(Midnight)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 때의 자정에 촬영한 것이 맞다.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의 수도)의 하지는 밤이 1~2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따라서 자정에 촬영했음에도 마치 정오에 촬영한 것과 같은 풍경이 되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불이 켜진 집도 없다.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달리함으로써 의혹을 만들고 질문을 남긴다.

도시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나는 유토피아적인 도시상에 관심이 많다. 1960년대에 슈퍼스튜디오(Superstudio), 아키그램(Archigram), 시츄에이션리스트 인터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 그리고 콘스탄트(Constant)와 같은 건축가 그룹들에 의해 그려진 활기차고 유동적인 미래도시상을 들여다보다가 시작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도시에 대한 경험을 부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 관객들이 이미지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아니라 부재와 충돌 그리고 재구성을 거쳐 제시되는 풍경에 관객 스스로가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가 내 작업의 중심이다.

백야 외에도 레이카비크에 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시리즈에 집중하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세계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주택시장 붕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이 시리즈는 단지 도시와 집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담고 있다. 투자와 안정의 상징이던 주택에 관한 개념은 급격한 변화와 도전을 겪었고, 레이카비크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에 상징적인 장소였다.

작품은 사진이면서 입체적인 조각이기도 하다.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가?

사진에서 빌딩 부분을 오려낸 후 오려낸 이미지를 다시 겹겹이 쌓는다. 그럼 오려낸 부분은 사진의 나머지 부분을 오히려 더 평평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 아래 놓인 이미지들과 오려낸 빈 공간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창조된다. 또한 빌딩 아래에 놓였던 또 다른 빌딩이 드러나고, 창고에 저장된 물과 발코니 아래에 놓인 나무도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레이카비크의 높은 곳에 올라가 360도 전경도 찍었다. 그 후 두 장의 사진을 손으로 잘라내고 다시 붙여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이곳의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풍경이 드러나게 했다.

도시의 이미지를 실제 환경에서 쌓아올려진 구조를 해체 하듯 잘라내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멈추지 않는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재구성되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이다. 잘려나간 빈 공간은 그림자를 만들고 사진에 공간감을 주면서 작품에 조각과 같은 형태와 의미를 부여한다. 작업과정이 다소 복잡적이고 복잡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속도를 낮추고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읽고 보고 촬영하는 과정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사진이 조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작품들은 어느 사진들처럼 에디션 번호가 없다. (조각처럼)하나하나가 세상에 한 점밖에 없는 유일한 것들이다. 또한 (조각처럼)전시된 공간과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미지에서 오려내져 뚫린 곳을 통해 전시장 벽면이 보이도록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작품을 건다. 그럼 이미지 속 회색은 전시장의 회색 벽면에 섞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하얀 벽에 걸리는 것과 회색 벽에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나는 내 작품이 전시된 공간과 함께 작용하기를 원한다.

나의 관심사는 사진을 하는 것과 함께 사진을 보다 폭넓



Midnight Reykjavik #5, 2007, From Midnight Reykjavik series
Two hand-cut chromogenic prints, 48x48 inches, Unique

(Trying to pull her away), 2010. From Dubrovnik series
Two hand-cut chromogenic prints, 36x36x2inches, Unique



(He sighs), 2009. From Dubrovnik series
Two hand-cut chromogenic prints, 36x36x2inches, Unique



(Coming back, now that she has gone), 2013. From Panama series
Two hand-cut inkjet prints, 41.75x60.25x2.25inches, Unique

은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오려내고 겹치는 것으로 부제와 혼동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각적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사진의 명료성과 편재성 그리고 이미지를 빨리 소비하는 현대의 문화를 거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속도와 완벽을 추구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의 길이를 더하고 속고의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이미지를 통해 매체의 본질을 읽고 이해하기 위함이다. 자르고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구축하려 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서도 같은 시기에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에 두브로브니크(Dubrovnik)에 갔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두브로브니크는 단순한 색상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다. 거의 자연재료에 가까운 두브로브니크의 색깔은 레이카비크의 밝은 원색들과 대비를 이루었고, 바다, 배 그리고 성벽을 따라 늘어선 길과 차들은 이 고립된 도시에 상동성(相同性)을 부여했다.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재료들로 지어진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풍경에 사진의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미지를 잘라내면서 각 집들의 파사드(건축물의 정면)를 떼어놓고 공간을 구분 지으려 하였다. 잘라진 이미지는 상동성과 일체성을 분리하여 각각의 공간을 달리하고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 레이카비크에서는 한 곳에 서서 파노라마를 촬영했던 것과 달리 두브로브니크에서는 7세기 이전에 세워져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석회암의 성벽을 따라 움직였다. 도시의 중심에서 서서 바라보는 대신, 도시의 주변부 경계에 서서 도시를 바라본 것이다. 'Midnight Reykjavik'에서 출발한 시리즈이지만 레이카비크처럼 도시의 복합성을 제시하기보다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러한 행위와 제스처가 가진 사회적, 정치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작업할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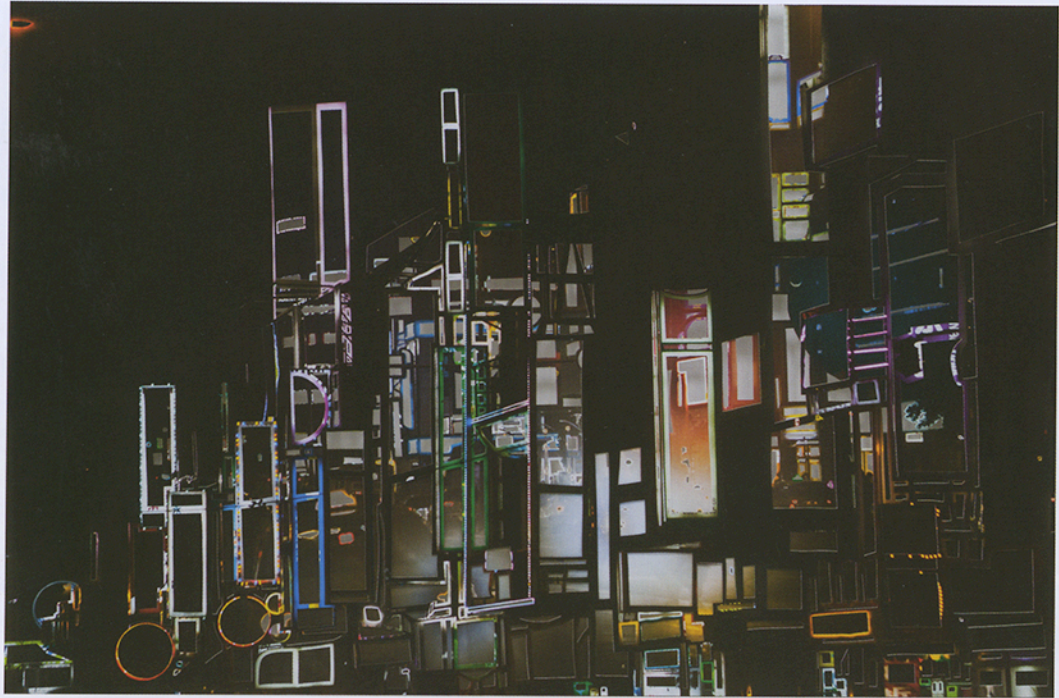
앞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레이카비크는 자정에 자연광을 볼 수 있는 나라의 수도를 찾다가 발견했고, 아르코산티(Arcosanti)는 역사와 이곳의 초기를 기록한 책 때문이었으며, 서울은 내가 갈 때마다 찾아가는 무덤에 감춰진 전쟁과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같리고 기독교가 강력한 장소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사이프러스, 대만 그리고 한국이 그렇다. 이러한 장소들은 아티스트로서의 내 활동과 주제의 범위를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도시의 야경을 촬영한 작품도 있는데, 어떤 작업인지 설명 부탁한다

대만의 타이페이를 촬영한 'Invisible Cities' 시리즈이다. 타이페이의 도심은 광고와 간판이 빌딩의 파사드를 가득 채운다. 나는 이 시리즈에서 광고와 간판을 오려내 상업적인 공간이 제거된 빈공간의 빌딩들로 재구성하였다. 오려진 사진의 빈 공간에는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진을 겹쳐서 채웠다. 작품에선 도시의 언어적인 기능을 하던 광고와 간판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았다. 우리는 이미지가 읽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 기능을 잃은 간판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의 '보이지 않는 도시'(Invisible Cities)에서 화자가 묘사하는 은유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적인 도시들과 닮아있다.

작품명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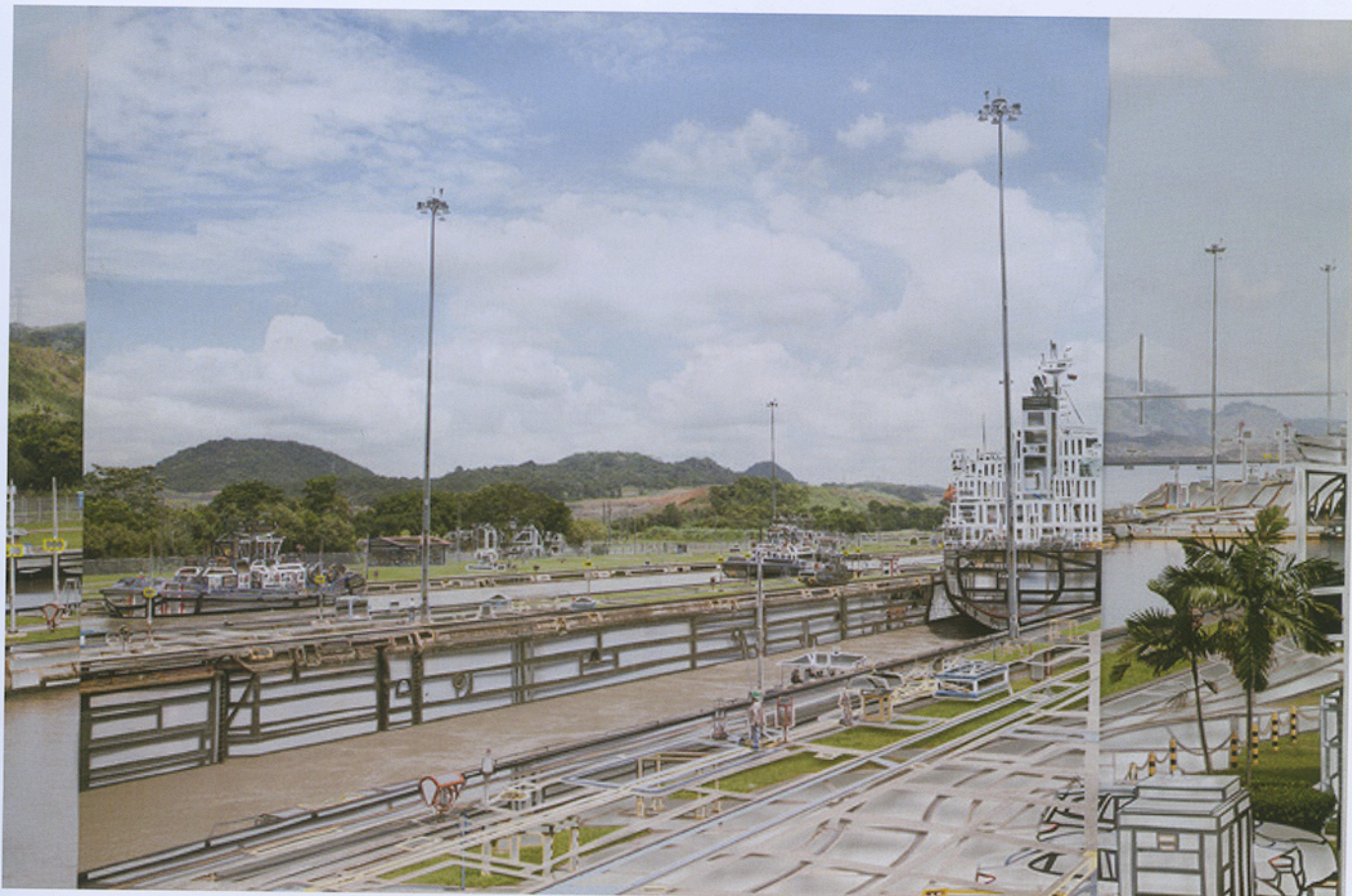
장 주네(Jean Genet)의 '발코니'(the Balcony),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코카서스의 백문원'(The Caucasian Chalk Circle),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 등 연극의 지문에서 가져왔다. 연극의 지문은 관객들에게는 감춰진 연극의 언어로서 순전히 공연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러



(Not sure of herself), 2012, From Invisible Cities series
Two hand-cut inkjet prints, 55.128x75.25x2.25inches, Unique



(The moment has passed), 2012, From Invisible Cities series
Two hand-cut inkjet prints, 33.75x47.625x2inches, Unique



(He looks in her direction, who is just disappearing), 2013, From Panama series
Two hand-cut inkjet prints, 41.75x60.25x2.25inches, Unique

한 지문을 작품명에 쓴 것은 이미지가 제거된 내 사진에서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점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시각적 정보의 일부를 도려낸 사진에 또 다른 방식의 정보와 내러티브를 더하려는 것이다. 언어로 전달하는 연극에서 대사가 되지 못하는 지문의 역할과 이미지로 남겨진 사진에서 잘려나간 이미지가 가진 역할이 서로 비슷한 방식이어서 흥미로웠다. 지문이 가진 서정적인 느낌 또한 좋았다. 내 작업을 간접적이고 부분적이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예전의 비디오 작업 등 다루는 매체가 상당히 다양해 보인다.

사진을 시작한 건 대학원 끝 무렵이다. 학부에서는 미술을 공부하며 비디오 작업이나 설치미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사진에는 내가 고민할 부분이라든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학위 논문은 거의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 사진은

관대하고 민주적인 매체이다.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성질이 그것에 강한 힘을 부여한다. 하지만 내가 사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재료나 매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약이 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사진 이외의 매체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사진 매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인가?

지금의 사진이 어떤 한계를 가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계가 여러 매체와 같이 호홉하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지점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적이고 기술적인 한계나 혼하고 복제가 쉽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결합과 제시의 방식까지, 사진 매체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나 논쟁의 지점들이 수많은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간이 되어왔다. ●